#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0호 【루계 제2740호】

주체112(2023)년 3월 4일 토요일 음력 2월 13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 자립경제발전의 전성기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 숭고한 리상과 포부를 안고 농촌진흥의 새시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112(2023)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심오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활동으로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전위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며 사회주의위업의 양양한 전도를 줄기차게 열어나가시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해당 성원들로 집행부를 선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원수님께 전원회의 사회를 위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토의사업목적에 대하여 밝히시고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실행의 첫해 사업정형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분석과 평가를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까운 년간에 농업생산을 안정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농촌의 정치사상적, 물질기술적 토대를 실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농업발전에 부정적작용을 하는 내적요인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해소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로부터 당중앙위원회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농사의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주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여 해당한 방책을 도출하며 올해 농사와 전망적인 농업발전토대를 닦기 위한 절실하고도 필수적인 과업과 방도적문제들을 다시금 명백히 확정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전원회의가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본 전원회의가 농업발전의 전망을 확고히 열어놓는데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위한 첫해 투쟁정형과 일련의 중요과업들에 대하여
2. 인민경제계획수행규률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하여
3. 국가재정금융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4. 조직문제

상정된 의정들은 전원일치로 승인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토의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위한 2022년도 사업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보고에서는 당의 농촌발전전략실행의 첫해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시정, 극복되여야 할 편향 및 교훈들이 다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상세히 지적되였다.

이어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토론을 제기하였으며 여러 부문 지도간부들이 서면토론을 제출하였다.

전원회의는 보고와 토론들을 청취, 분석하고 해당한 평가를 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 《올해 농사에서 나서는 당면과업과 농업발전의 전망목표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결론에서 우리 당은 농촌문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위업실현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전략적문제로 중시하고 그 옳바른 해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구상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의 달성은 거창하고도 심각한 혁명이므로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단계와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지향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의 력사적의의와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농촌혁명강령은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이후 변천하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부응하여 농촌의 개변을 위한 중요한 단계들과 점령해야 할 목표들을 명백히 밝히고 가까운 장래에 현실로 변모되는 농촌, 선진기술과 현대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2면으로 계속)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1면에서 계속)

결론은 현 단계의 투쟁에서 농촌을 혁명적으로 개변시키는것을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하기 위한 중차대한 혁명과업으로 다시금 제기하고 사회주의농촌혁명강령을 완벽하게 실행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알곡생산목표점령을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첫번째 고지로 내세운 당중앙의 의도와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의 기본목적이 언급되고 주되는 농업발전목표와 과업들이 제기되였다.

결론은 농사에 대한 지도에서 개선을 가져올데 대하여 중요하게 지적하면서 농업생산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시행방도들을 밝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를 실현하는데서 도, 시, 군의 지도기관들과 모든 농장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결론에서는 올해에 농촌건설을 더욱 확대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과 시, 군들에서 첫째가는 의의를 부여하고 완강히 추진하여야 할 정책적과업들이 제시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당에 강력한 령도체계가 서있고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이 있는한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자존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농촌혁명의 기치높이 농업생산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우리나라 농촌을 문명하고 부유한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투쟁방략들이 집대성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결론은 전체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심원한 독창성과 과학성으로 일관된 김정은원수님의 결론은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위한 거창한 공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한 변혁의 무기로, 우리의 리상과 자기 힘에 대한 자신심으로 충만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력사적진군을 위대한 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 불멸의 대강으로 된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인민경제계획수행규률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수행규률문제를 주요의정으로 취급하는 의도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경제부문과 단위들의 계획수행과정에 이룩되고있는 긍정적인 변화들과 편향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단 세워진 인민경제계획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홍정할 권리가 없다고 하시면서 경제부문 일군들이 계획수행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고 나타날수 있는 난점들을 예견하고 극복방도를 모색하면서 완강한 노력을 기울여 실천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당조직들이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의 조직력과 집행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들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며 당사업을 당정책집행에로 철저히 지향복종시켜 올해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자기의 전투력을 검증받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인민경제계획수행규률을 철저히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이 반영된 보고가 있었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으로 《국가재정금융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덕훈 내각총리가 보고를 제기하였다.

보고에서는 나라의 재정토대와 재정규률을 강화하고 은행사업을 개선하며 과학적인 국가금융체계를 확립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재정적으로 담보하는데서 절실한 실천적문제들이 언급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령적인 결론에서 제시하신 농촌발전방략의 철저하고도 정확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제발전을 가일층 촉진시켜나가기 위한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농업생산과 경제건설의 근본적인 변혁, 실제적인 변화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목표와 수행방도들이 반영된 결정서초안을 최종심의하고 전원회의의 승인에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사회주의농촌혁명강령의 빛나는 실행을 위한 발전전망적인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문제도 결정서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서의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할데 대한 문제가 결정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폐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에서 관건적인 시기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는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2대분야인 농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보다 확실한 방안들을 책정하고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촉진시킬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농촌을 사상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며 방조하는것이 전사회적인 흐름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발전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중요원칙들과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지도기관성원들을 비롯한 일군들모두가 우리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무겁게 자각하고 사회주의건설도상에 가로놓인 장애들을 타개하는데서 투쟁의 기치, 전진의 기수가 되여 맡은 책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폐회를 선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는 사회주의농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위대한 새시대, 자립경제발전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도약의 리정표로,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정신에 대한 자신심을 안고 백절불굴하는 전체 인민의 투쟁열의와 전진기세를 비상히 앙양시키는 중요한 정치적계기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 진행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격동적인 연설로 청년전위들을 고무격려해주시고 착공의 첫삽을 뜨시였다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원대한 구상과 결심을 가슴벅찬 현실로 펼쳐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려정에서 사회주의발전과 미래의 상징물로 될 새 거리가 수도 평양의 서포지구에 일떠서게 된다.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이 2월 25일에 진행되였다.

주체적청년운동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게 될 착공식장은 당중앙의 숙원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보람찬 전구에서 사회주의문명창조의 기수가 되여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해나갈 청년건설자들의 혁명적열의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착공식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이 땅우에 청년중시의 숭고한 새 경륜을 펼쳐가시며 우리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투쟁의 선봉대, 돌격대로,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전도양양한 젊은 주력부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고 정과 사랑을 다해 키워주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러 열광넘친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리였다.

착공식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착공식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용감성과 위훈으로 빛나는 우리 나라 청년운동사에 또 하나의 긍지높은 페지를 아로새기게 될 현대적인 새 거리건설의 의의깊은 착공을 청년탄원자들과 함께 선포하게 된 기쁨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청춘기념비를 세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불멸할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온 나라의 돌격전구마다에 파급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우리 시대 사회주의청년전위들이 지닌 불굴의 특질과 투쟁기개의 상징으로, 고난을 박차고 무쌍하게 일떠서는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의 한 부분으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위대한 정신을 더욱 승화시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행정에서 청년들의 애국열의를 다시금 높이 발휘할수 있는 새 활무대, 거창한 청년판을 펼쳐놓기로 한 우리 당의 결심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시대의 부름과 인민의 기대에 영웅적투쟁으로 보답하여 수도의 새 거리를 훌륭히 건설할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청년의 값높은 명예를 위하여,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의 수도 평양을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청년들에 대한 한없는 믿음과 사랑이 구절구절 넘치는 격동적인 연설을 마치시자 꿈만같은 영광과 행복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열광의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기발을 지휘성원들에게 수여하시였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영예로운 기발을 투쟁과 전진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충성의 대격전장에서 백두산영웅청년정신과 기상을 다시한번 백배천배로 증폭시켜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건설신화를 창조할 청년전위들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맹세의 함성으로 분출되였다.

전체 청년건설자들은 당의 부름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온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이어 불가능을 모르는 조선청년의 기상과 본때로 총돌격하여 주체조선의 심장인 수도 평양에 인민의 리상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우고 아버지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릴 엄숙한 결의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을 기념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몸소 첫삽을 뜨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착공식장에 몸소 나오시여 불같이 뜨거운 연설을 하시고 가장 사랑하는분과 함께 건설의 첫삽도 뜨시며 청년들이 수도건설의 최전구에서 위훈의 창조자, 승리자가 되라고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아버지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열광넘친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발파단추를 누르시였다.

착공을 알리는 발파폭음이 장쾌하게 울려퍼지는 속에 우리 청년들이 걸어갈 영용한 투쟁과 전진의 앞길에 뿌려지는 시대의 축복인양 환희로운 축포탄들이 2월의 하늘가에 날아올랐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을 더없는 영예로, 자랑으로 간직하고 당의 구상실현을 위함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우리 청년들의 정신상태와 기세가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뜨거운 청춘의 혈기와 열렬한 애국충심으로 우리 위업을 옹위하는 신념의 억척성새를 높이 쌓아올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청년들이 오늘의 장엄한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골간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해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수도 평양을 위하여!》라는 신성한 의무와 시대의 부름을 깊이 간직하고 웅장화려한 새 거리, 부흥강국의 변혁적실체를 보란듯이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미더운 청년전위들을 뜨겁게 고무격려하시였다.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은 위대한 당중앙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벽을 이루고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조선청년들의 슬기롭고 강용한 기개와 약동하는 젊음으로 광활한 미래를 향해 용진하는 우리 국가의 힘찬 전진기상을 온 세상에 다시금 뚜렷이 과시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 총진군대오에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시여

온 나라가 광명성절경축분위기로 흥성이는 가운데 수도의 어느한 경기장에서 이채로운 축구경기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사이에 진행된 축구경기였다.

선수들모두가 지칠줄 모르는 강한 승부심으로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며 멋진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이였다. 그때마다 관람석에서는 기쁨과 아쉬움이 엇갈린 호성이 터져나오고 응원열기는 한층 고조되였다.

이날의 경기가 더욱 뜻깊고 흥겨운 체육무대로 된것은 나라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체육문화행사를 마련해주시고 몸소 시간을 내시여 자리를 함께 하시며 온 나라 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와 기쁨을 안겨주시였기때문이다.

경기 전 과정을 즐겁게 보아주시면서 호탕하게 웃기도 하시고 때로는 곁에 앉은 일군들의 귀속말도 즐거이 들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경기는 국방성팀이 내각팀을 3:1로 이기는것으로 끝났지만 이긴 팀성원들의 기쁨은 더 말할것 없고 진 팀성원들의 가슴마다에 갈마든것도 아쉬움과 함께 흔흔하고 즐거운 감정이였다. 경기는 이기고지고했지만 모두가 승자의 쾌감에 휩싸여있었다.

왜서일가.

아직 땅은 겨울의 랭기가 가셔지지 않았지만 경기장안에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있었다. 이것이 단순히 자연의 봄바람이라고만 하랴.

이날의 뜻깊고 유쾌한 축구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의 뇌리에 스며드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1951년 3월 3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조직한 뜻깊은 축구경기에 대한 것이였다.

이날 최고사령부가 자리잡은 건지리의 학교운동장에서는 조선인민군의 전선부대 지휘성원들과 총참모부 성원들사이의 희한한 축구경기가 벌어지게 되였다.

당시 전선에 있는 련합부대들은 미제침략자들의 모험적인 《제한공세》를 짓부시기 위해 가렬처절한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그처럼 준엄하고 긴장한 시기에 전선으로 한시바삐 달려가야 할 전선부대 지휘성원들모두가 배포유하게 축구경기판을 벌려놓았으니 누군들 놀라지 않을수 있으랴.

한창 전쟁중에 전쟁을 지휘해야 할 최고사령부에서 진행된 축구경기.

이 희한한 축구경기는 언제나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믿음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담력과 배짱을 떠나서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였다.

당시 총참모부의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전선정황이 긴장한데 군단지휘성원들을 부대로 빨리 내려보내야 하지 않겠는가고 문의하였을 때 수령님께서는 집무실이 떠나갈듯 호탕하게 웃으시며 일없다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고 한다.

**당과 인민군대가 있고 인민이 있는데 걱정할것이 없습니다. 승리는 정의의 위업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배심이 든든합니다. 전쟁때라고 축구경기를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백두광야에서 일제 100만관동군과 싸울 때에도 체육경기도 하고 써클도 하고 춤도 추면서 사기를 올렸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진행된 축구경기는 인민군지휘성원들로 하여금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작전과 전투를 더욱 능숙하게 조직지휘하게 하였고 전선의 병사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어 위대한 전승신화를 앞당겨오는데 기여하였다.

그때로부터 70여년이 지났지만 조선반도의 정세는 여전히 긴장하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각일각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대조선제재압살책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자주적인 우리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젖먹은 힘까지 다 짜내여 공화국을 사면팔방에서 포위하고 최대로 압박하며 위협해나서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벌써 몇차례나 전략자산들을 동원하여 북침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적대세력들은 3월중순에는 11일간에 걸쳐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까지 광란적으로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은 너무도 태연자약하다. 웃고있다.

온 나라 각지에서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기쁨과 환희속에 성대히 경축하는 속에 령도자를 모시고 즐거운 체육문화행사까지 펼쳐놓은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승자의 든든한 배심이 없으면 명절도 즐겁게 쇨수 없고 흥겨운 체육문화행사도 펼칠수 없다. 혹독한 국난이 계속되고 한쪽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빼앗으려고 적대세력들이 피를 물고 달려드는 때에 축구공을 환희롭게 하늘가에 차올릴수도 없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 적대세력들과의 사상의 대결, 의지의 대결에서도 이겼고 힘의 대결에서도 이겼다.

얼마전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경축하여 성대하게 진행된 열병식때에 김일성광장을 보무당당히 지나가던 최정예강군의 위용과 지심을 흔들며 초대강국의 존엄과 위력, 국광을 남김없이 떨쳐준 각종 전략전술무기들.

그 무진한 군사적강세에 적대세력들은 무서운 공포에 질려 전률하였다.

미국이 자국의 힘으로도 모자라 남조선은 물론이고 재침의 칼을 가는 일본, 지어 대륙너머의 나토무력까지 동원하여 조선에 위협을 가해오는 자체가 약자의 허세이고 미국이 얼마나 당황망조해하는가를 보여주는것이다.

력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조선과의 대결에서 어느 한번도 이겨본적이 없다. 매번 패배의 고배만 마시였다. 일찌기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작은 나라에 한대 얻어맞고 코피를 흘리고있다.》고 평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1970년대의 판문점사건, 그리고 지난 세기 90년대와 현세기초에 벌어진 조미대결이 그것을 말해준다.

오늘 조선은 그때와 비할수 없게 너무도 강대해졌다.

누구도 무시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 초대강국으로 솟구쳐올랐다. 조선의 힘은 우주만리에 닿았고 세계의 정치력학구도를 변화시키고있다.

김정은시대에 조선은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내달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하며 천하제일강국으로 무섭게 솟구치고있다.

약자와 패자는 늘 불안감을 안고 초조해하지만 강자와 승자는 언제나 태연자약하고 배심이 든든한 법이다.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준다.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앞에 혼비백산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숙명적인 불안감속에 하루가 멀다하게 모여앉아 파국적위기를 수습해보려고 쑥덕공론을 하고 저들의 가련한 처지를 가리우려고 전쟁연습을 한다 어쩐다 하며 허세와 만용을 부릴 때 공화국에서는 적대세력들을 더욱 아연케 하는 창조와 행복의 발파소리가 2월의 강산에 련이어 울려퍼지였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대규모강동온실농장건설착공식 진행,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 진행…

그 착공의 련이은 발파소리들은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커가는 소리, 사회주의승리의 만세소리였고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빼앗으려고 날뛰는 적대세력들에게 영원한 패배를 선언한 승리의 퇴성이였다.

온 나라가 더 큰 승리와 행복의 래일을 그려보며 환희속에 지켜본 그 뜻깊고 감동깊은 착공식들에 몸소 참석하시여 온 세상이 밝아지게 환히 웃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날의 환한 웃음, 승리자의 여유작작하고 호탕한 웃음소리는 경기장안에서도 울리고있었다.

모두가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웃음과 기쁨을 같이 했다.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가슴부풀도록 새겨안았다.

주석단 관람석에 앉으시여 어버이의 정겨운 시선으로 량팀의 경기모습을 보아주시며 박수를 쳐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과 그이께 자기들의 더 좋은 경기모습을 펼쳐보여드리려고 힘든줄 모르고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는 선수들과 응원열기를 올리던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이날의 흥겨운 경기장의 모습과 분위기는 천만인민이 령도자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일심일체가 되여 부흥강국의 래일을 앞당겨오고있는 밝고 전도양양한 공화국의 축도였다.

이런 공화국을 과연 누가 당할수 있겠는가.

오늘 전세계가 주목하는 최강의 지도자이시고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정의도 힘도 조선이 가지고있고 시간도 다른 누가 아닌 조선의 편이다.

시간이 한초한초 흐를수록 조선은 더욱 강대해질것이다. 더 큰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허 성 철

##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

# 공화국이 나아갈 앞길을 밝힌 시정방침을 제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심오한 사색으로 변천되는 력사발전의 추이를 꿰뚫어보시며 위대한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는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11(2022)년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되는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시정방침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줄기찬 발전과 전진을 확신성있게 인도하는 전투적기치이며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화국과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정방침에서 2022년의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분석총화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들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법적무기를 마련하였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이번에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것은 공화국정부의 자주적결단과 견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의지에 대한 더욱 뚜렷한 과시로 된다는데 대하여,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것이 가지는 사변적인 의의에 대하여, 만약 공화국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환경이 변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하나하나 명백히 천명하신것은 특출한 사상리론의 거장으로서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잘 말해주고있다.

핵무력정책을 법화함으로써 공화국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력사적진군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믿음직한 법적무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2022년에 이룩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과 더불어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을 이룩해나가는 전인민적인 투쟁기세를 비상히 앙양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에서 조성된 현 국면과 정세발전추이, 나라의 구체적실정, 발전잠재력과 토대에 대한 명철한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로 확고히 이행시키기 위해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당면한 투쟁방향과 정책적과업들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국가방위력건설을 최우선, 최중대시하여 공화국무장력을 더더욱 불패하게 만드는것을 제1혁명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 국가경제발전의 5개년계획을 완수하고 그 성과를 다음단계에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 교육, 과학기술, 보건사업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을데 대한 사상, 현 국제정세의 발전추세와 자주강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사상들은 공화국의 강대성과 필승불패성을 더 높이 떨칠수 있는 진로를 환히 밝혀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정방침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을 무조건 철저히 실행할 때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은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인민들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은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게 될것이다.

위대한 사상의 빛발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여 공화국은 순간의 침체나 답보를 모르고 계속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백 명 일

# 령도자의 믿음이면 지구도 드는 청년들

약동하는 봄을 맞이한 이 땅이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장에 나오시여 격동적인 연설로 청년전위들을 고무격려해주시고 착공의 첫삽을 뜨신데 이어 발파단추를 누르신 소식은 지금 온 나라를 격정으로 들끓게 하고있다.

특히 수도의 건설전역의 모든 건설대상들이 다 수도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것이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수도, 어머니평양을 위한것이기에 우리 당은 다같이 중시하고 강력히 추진하고있지만 청년들이 맡은 새 거리건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하고있다는것을 강조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 접한 온 나라 청년들의 가슴가슴은 더욱 크나큰 격동으로 끓고있다.

자신께서는 용감성과 위훈으로 빛나는 우리 나라 청년운동사에 또 하나의 긍지높은 페지를 아로새기게 될 현대적인 새 거리건설의 의의깊은 착공을 동무들과 더불어 선포하게 된것이 더없이 기쁘다고 하시며 《자랑스러운 청년건설자동무들!》이라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담아 불러주실 때 새 거리건설장으로 용약 달려온 10여만 청년들은 물론 온 나라 청년들이 솟구치는 격정에 눈굽을 적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평양시에 2단계 1만세대의 살림집건설외에 새로 수천세대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고 그 보람차고 영예로운 건설과제가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졌다는 격동적인 소식이 전해진 때로부터 얼마 안되여 전국각지에서 수도건설에 탄원한 청년들의 수는 무려 10여만명을 헤아렸다. 아니, 온 나라의 수백만 청년들의 마음과 마음들이 령도자가 펼쳐준 여기 수도의 새 활무대, 거창한 청년판으로 달리고있다.

령도자의 믿음이면 우리는 지구도 든다!

바로 이것이 이 땅 그 어디서나 울려나오는 청년들의 한결같은 웨침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지만 공화국의 청년들처럼 자기 령도자의 호소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청년들, 그것을 가장 고귀하고 값높은 삶으로 여기는 청년들은 없다. 극단한 개인주의와 부패타락한 생활풍조에 물젖어 사회의 우환거리로, 골치거리로 되고있으며 《청춘이여서 죄송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는것이 바로 오늘날 남조선을 비롯한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의 청년들이다.

허나 공화국의 청년들은 령도자의 가장 큰 사랑과 믿음속에 조국의 휘황한 번영을 위해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애국의 열정과 땀방울을 다 바쳐가고있다.

공화국청년들의 이러한 자랑찬 모습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사상과 위대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번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청년건설자들이 당과 조국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조선청년다운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수도평양의 북쪽관문에 세상을 놀래울 사회주의발전과 미래의 상징물을 보란듯이 떠올리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당과 조국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조선청년다운 기질!

돌이켜보면 성스러운 공화국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를 받들어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영웅적위훈을 떨쳐온 청년들의 값높은 삶과 투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새겨져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제에 의해 조선에서 전쟁의 불길이 타올랐을 때 모든 힘을 전쟁승리에로 부른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두달도 못되는 기간에 무려 84만 9 000여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용약 전선으로 탄원하였다. 그리고 전선으로 달려나간 청년들 모두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용감히 싸워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다.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복구건설의 기적을 창조하고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려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운 기적의 주인공들도 청년들이였다.

조선로동당의 부름에 언제나 《알았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모른 조선의 장한 청년들은 200여리에 달하는 해주—하성사이의 철길공사도 단 75일동안에 완공하여 세상을 놀래웠으며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근 700일동안 함마전, 마대전을 벌려 100여리의 청년영웅도로를 완공하는 기적도 이룩하였다. 또한 금야만의 바다가에 년간 수만t능력의 광명성제염소도 건설하였다.

지난 10여년간 령도자의 구상을 받들어 온 나라 도처에 인민을 위한 훌륭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희한한 별천지들을 꾸리며 아침과 저녁이 다른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온 주인공들 역시 공화국의 청년들이다.

공화국이 부강조국건설의 맨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여는 이런 훌륭한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이룩하신 크나큰 업적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나날 청년중시가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임을 천명하시고 청년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거듭거듭 안겨주시였다.

어느해인가는 청년절날 멀리 전선길에서 은정넘친 축하문을 보내주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돌아오시는 길로 청년절경축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또 언제인가는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찾으시여 온 나라가 다 알게 청년들의 위훈을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떳떳치 못한 지난날과 결별하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청년들의 소행도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이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라는 대해같은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공화국의 청년들은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스승, 걸출한 령도자의 이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생명선, 삶의 자양분으로 여기며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는것으로 보답하고있다.

오늘의 새 거리건설장에서도 모든 청년들은 또다시 거창한 수도건설대전에 피끓는 자기들을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믿음에 불가항력의 영웅적투쟁과 불멸의 위훈으로 보답할것이며 다시한번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할것이다.

청년들이 일떠서면 무서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당과 조국의 부름에 절대적인 충성과 완벽한 실천으로 화답해나서는 수백만 애국청년들의 충천한 기세가 있어 이 땅은 영원한 청춘으로 더욱더 젊어질것이다.

김 춘 심

#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꽃들은 만발한다

이제 며칠 있으면 3.8국제부녀절이다.

해마다 그러하지만 이날을 맞으며 공화국녀성들의 얼굴마다에는 꽃같이 아름다운 웃음이 비껴흐르고 그로 하여 거리거리는 더욱더 환해지는것같다.

세상을 둘러보면 어느 대륙, 어느 나라에나 다 녀성들이 있지만 공화국의 녀성들처럼 전사회적인 관심속에 존엄높고 행복넘친 삶을 누려가는 녀성들은 없다.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이 나라의 꽃, 생활의 꽃, 가정의 꽃으로 떠받들리우고 국가와 사회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되고있다.

《녀성은 꽃이라네》, 《안해의 노래》, 《사랑하시라》, 《우리 집사람》을 비롯한 녀성들의 행복한 삶을 구가한 노래들을 새겨보아도, 녀성들의 명절인 3.8국제부녀절과 어머니날을 비롯하여 뜻깊은 날들에 존경과 사랑이 담긴 꽃다발과 진정어린 축하장, 기념품들을 한가득 받아안고 기쁨에 겨워 환하게 웃는 녀성들의 모습을 보아도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대화원인 공화국에 대해 잘 알수 있게 한다.

《위대한 당의 품이 아니라면 어찌 저의 보람차고 행복한 삶에 대해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20여년간 다기대운동의 순회길을 쉬임없이 달린것은 이 나라 공민으로서 응당 해야 할 본분이였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녀성로동자인 저를 시대의 전형으로, 우리 당대회의 대표로까지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도 참가하도록 해주시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의 자리에도 세워주시였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전형, 공훈방직공으로 온 나라가 다 아는 리명순녀성 한사람의 목소리만이 아니다.

녀성들이 없으면 가정도 사회도 나아가서 조국의 미래도 있을수 없다고 하시며 녀성들에게 값높은 삶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에서 시대의 전형으로, 로력영웅으로, 인민과학자, 인민체육인으로 자라난 수많은 녀성들, 아니 온 나라 녀성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태양의 빛과 열을 떠나 아름다운 꽃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듯이 녀성들의 자주적존엄과 권리, 값높은 삶도 그들을 아껴주고 믿어주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품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사람들은 지금도 잊을수 없어 자주 외우군 한다.

주체101(2012)년 3.8국제부녀절에 녀성들을 위한 성대한 음악회가 열리였던 감동깊은 날을.

그날의 뜻깊은 음악회를 마련해주시려 무려 10여차례나 세심히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음악회에 녀성들과 함께 참석하시여 명절을 맞는 온 나라 녀성들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내주실때 또 한분의 위대한 어버이의 품에 안긴 더없는 행복감으로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린 이 나라의 녀성들이다.

잊을수 없는 그날 음악회에 초청되였던 최남순녀성은 후날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10여년전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남편과 함께 나란히 앉아 경축공연장에 울려퍼지는 어머니에 대한 노래들을 들으며 눈물을 많이도 흘리였습니다. 정말이지 시간이 흐를수록 철없이 받아안기만 한 당의 사랑에 천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한 죄스러움으로 얼굴을 들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우리 녀성들에게 사랑의 선물까지 가슴한가득 안겨주시였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더 분발하고 더 이악하게 노력한것뿐인데 오늘은 세상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호화주택 경루동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였으니 정녕 그 품속에 안겨사는 이 행복, 이 영광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 우리 녀성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녀성들을 위해 일떠선 현대적인 치료기지들에도, 녀성들이 즐겨 찾는 화장품에도 력력히 어리여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일 잘하는 녀성일군, 녀성로동자들을 만나실 때면 더없이 기뻐하시며 높이 내세워주시는분, 어느한 녀성중대를 찾으시여서는 군복입은 녀성군인들이 더없이 미덥고 대견하시여 오랜 시간 서계시며 한사람, 한사람 기념사진을 찍어주신분, 조국의 하늘을 지켜가는 녀성비행사의 무랍없는 청도 들어주시며 태여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온 나라가 다 아는 비행사부부로 내세워주신분, 부모잃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고 영예군인의 길동무가 되여 한생을 바쳐가고 병사들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하는 녀성들을 영광의 단상에 세워주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그이이시다.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의 구절구절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던가.

가정의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딸들을 당과 혁명에 충실하도록 떠밀어주며 어려운 때에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해온 우리 녀성들과 녀맹원들의 뜨거운 진정은 시련을 맞받아 전진하는 우리 혁명에 커다란 힘을 더해주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녀성들을 위해 바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심혈과 로고는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끝이 없다.

그처럼 준엄하고 어려웠던 지난해에 세상에 없는 육아법을 채택하도록 하시고 악성비루스의 경내류입이라는 준엄했던 최대비상방역기간에 자식들의 운명을 두고 눈물짓고있을 이 나라의 어머니들을 위해 애기젖가루와 암가루를 공급하기 위한 비상전투를 긴급조직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녀성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녀성옷전시회—2022》가 성대히 진행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하기에 이 나라의 녀성 누구를 만나보아도 위대한 어버이의 그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고 자기들의 심중을 터치고있다.

이러한 공화국의 현실을 놓고 세계 각국의 인사들은 《조선에서는 녀성들이 남자들과 꼭같이 로동의 권리를 향유하고있을뿐 아니라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발전권도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녀성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의 녀성들에게 있어서 환상의 세계가 아닐수 없다. 녀성존중의 대화원이 펼쳐진 조선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녀성들의 천국이며 리상국이다. 세상에 다시 태여날수만 있다면 조선의 녀성으로 태여나고싶다.》, 《조선녀성들의 존엄과 긍지는 오늘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3.8국제부녀절을 맞을 때마다 국가적행사들을 조직하여 녀성들을 축하해주도록 하신다.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도록 하시여 녀성들의 긍지를 더해주신분도 그이이시다.》고 하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가정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으로 불리우며 떠받들리우는 공화국의 녀성들, 그 꽃들을 만발하게 피워주는 따사로운 해빛은 녀성존중, 녀성중시의 사회주의대화원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과 믿음이다.

온 나라 녀성들을 인간존엄의 최절정, 행복의 단상에 올려세워주시고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이 땅에서 녀성들의 삶은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 시 꽃다발을 받으시라

리광훈

3.8절 이날은 우리 녀성들
누구나 축복을 받는 명절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아껴주고 위해주는 뜨거운 진정에
가슴 뿌듯해지는 기쁨의 날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가슴에서 웃고
사랑의 노래 심금을 울리여주는
우리는 3.8절 행복의 주인공들
녀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날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습니까

이 행성에 3.8절은 꼭같이 와도
하나같지 않습니다 녀성들의 모습은
기구한 운명 피할수 없는 불행에
모대기고 가슴뜯는 그런 녀성들
둘러보면 이 세상에 그 얼마이던지

꽃은커녕 늘어만 가는 빚문서가
떨리는 손에 가차없이 쥐여질 때
배척과 멸시가 내던진 타락의 늪에서
품어줄 사랑 애절하게 찾고 부를 때
3.8절은 그들에겐 슬픔입니다

살길이 막막해 자식들 목숨마저
제손으로 끊어야 하는 그런 어머니들에게
녀자라면 응당 차별을 받아야만 하는 세상
가정도 인생도 포기한 그런 녀성들에게
3.8절이라 어이 웃음이고 기쁨이겠습니까

해빛 없인 피여날수 없는 꽃처럼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사랑
안아주고 내세워주는 품이 없인
꽃으로 피여날수 없는 녀성들의 운명
명절이라 한들 그 운명 달리될수 없거니

아,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어주고
존엄도 인격도 지켜주고 빛내주는 내 나라
사랑다해 품어주는 이 땅에서
영웅으로 박사로 혁신자로 공로자로
긍지높은 삶을 누려가는 우리 녀성들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는 3.8절입니까
고마운 내 조국 받들어 한생 바쳐갈
불같은 마음 차넘치는 3.8절
이 나라 천만녀성들
충정의 꽃다발 조국에 드리는 날입니다

# 가정부인들로 무어진 롱구팀

호각소리, 응원소리…

얼마전 평천구역식료품종합상점의 녀자롱구팀과 평천일용필수품공장의 녀자롱구팀사이에 진행된 열기띤 경기는 볼만하였다.

평천구역식료품종합상점의 7번선수가 공을 몰고 상대편 선수들을 요리조리 빼돌리며 번개같이 달려나가자 두명의 방어수들이 두팔을 벌리고 막아나섰다.

위급한 순간, 공이 륜을 향해 날아갈것인가 아니면 왼쪽방향에 있는 선수에게 련락될것인가. …

그 찰나 크게 방향을 바꾸어 뒤로 날아가는 공, 5번선수가 재빨리 그 공을 넘겨받아 별로 견주지도 않고 교예사와 같은 동작으로 먼거리던져넣기를 하였다.

슛— 심판원이 3점투사가 성공되였음을 알리였다.

《성공이다!》, 《정말 볼만하다. 선수들의 롱구기술이 대단하다.》, 《저렇게 3점투사도 거침없이 성공시키고 빼돌기, 륜밑투사도 막힘없이 하는 선수들이 모두 가정부인들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민첩하고 재치있는 동작이 펼쳐질 때마다 사람들속에서 감탄사가 연방 울려나왔다.

이날 경기에서는 선수호상간 협동을 강화하면서 먼거리던져넣기에서 우세를 보인 평천구역식료품종합상점팀이 이겼다.

가정부인들로 이루어진 이곳 롱구팀은 실력이 높기로 소문이 났다.

이 롱구팀은 구역적인 단위별롱구대항경기에서 언제나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고 한다.

재치있는 련락으로 득점의 문을 열군 하는 현원금, 리은하선수들이며 3점넣기에 특기가 있는 백설경선수, 철벽의 방어수로 소문난 김룡희선수들은 팀의 기둥선수들이다.

가정에서는 살뜰한 주부이고 일터에서는 친절한 봉사자이지만 일단 경기장에 나서면 전문가들도 무색케 할 롱구기술을 발휘하는 미더운 녀자롱구선수들.

이들을 만나 가정부인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높은 롱구기술을 소유하게 되였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들은 한목소리로 《집단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소박한 말이지만 그속에는 녀성들의 소질과 희망, 열정과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양시켜주는 집단의 믿음과 고무속에 대중체육활동을 마음껏 벌리며 희열과 랑만에 넘쳐 생활하는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이들이 롱구에 힘을 넣기 시작한것은 10여년전부터라고 한다.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나날에 구역에서 단위별롱구대항경기를 조직했을 때 평천구역식료품종합상점의 일군들은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가정부인들이라고 왜 롱구를 못하겠는가. 열심히 훈련하여 꼭 1등을 쟁취하자.

그때부터 이곳 종업원들은 봉사활동을 벌리면서 여가시간이면 롱구훈련을 직심스레 하기 시작하였다.

이곳 일군들은 롱구를 처음 배우는 종업원들을 위해 《누구나 배울수 있는 롱구》와 같은 책들을 구해주기도 하고 롱구경기를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집단안에 언제나 희열과 랑만, 기백과 열정이 차넘치게 하였다.

봉사활동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롱구훈련에 여념이 없는 종업원들을 위해 갖가지 영양식품과 보약들도 성의껏 마련하여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준 종업원들도 많았다.

이 나날 젊은 녀성들은 물론 나이가 많은 녀인들도 저저마다 훈련에 참가하여 롱구기술을 습득하였다니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품들인 보람이 있어 마침내 롱구종목에서 구역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였고 모범체육단위의 영예도 지니였다.

평범한 녀성종업원들이 한다하는 롱구명수들로 자라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녀성들을 한가정의 꽃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며 긍지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해주는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본사기자 홍범식

# 사회적풍조—녀성천시, 녀성학대

녀성천시, 녀성차별의 사회적풍조가 만연하는 남조선에서 녀성들의 처지가 날이 갈수록 비참해지고있다.

남조선에서 녀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지 못하며 갖은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녀성들이 일자리를 얻는다는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것과 같으며 설사 직업이 있다고 해도 남성들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다.

2021년 한해만 놓고보아도 악성전염병발생이후 녀성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0.9% 떨어진 반면에 녀성실업률은 남성에 비해 1.7%나 더 올랐다고 한다. 녀성로동자들의 임금수준도 남성로동자의 72%에 불과하다고 한다.

몇해전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남조선 각지에서 녀성들이 《15시 STOP 조기퇴근시위》를 벌리였다. 남성과 녀성의 임금격차를 8시간로동으로 환산해보면 녀성은 15시부터 무급로동을 하는것과 다름없다는 리유에서였다. 이날 조기퇴근시위에 참가한 녀성들은 《차별적인 임금실태를 공개하고 격차를 해소하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남녀갈등, 녀성혐오가 만연하고 녀성이 상품화되고있는 남조선에서는 녀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행위들도 꼬리를 물고일어나 녀성들의 인격과 존엄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가정과 일터, 공공장소들에서 녀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건수는 2019년에만도 5만 2 900여건으로서 이것은 하루에 평균 140여건씩 발생한것으로 되고있다고 한다.

《지속적인 폭력에 못이겨 헤여지자고 했더니 내 목을 조르며 흉기를 들고 협박하였다.》, 《〈넌 내 인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강박했다.》, 《꼬박꼬박 말대꾸한다는 리유로 매를 맞았다.》

단지 녀성이라는 리유로 온갖 사회악과 불평등, 생활난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절망과 타락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는것이 남조선녀성들의 불행한 처지이다.

이런 비참한 처지는 윤석열역도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것으로 하여 더욱 악화되고있다.

《녀성가족부》페지를 떠들며 녀성혐오, 남녀갈등을 조장시켜온 윤석열역도에 의해 녀성차별화, 성폭행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다. 지어 20대녀성들속에서 앞으로 5년간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출산보이코트운동》까지 벌어지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에서 《녀성들의 생존기반이 무너지고 폭력과 혐오가 위험수위에 이르고있으나 이를 해결할 정치는 실종되였다. 정치가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윤석열은 남녀갈등, 녀성차별을 조장하는 장본인이다.》고 개탄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겠는가.

얼음우에 떨어진 씨앗은 자랄수 없다.

가정의 꽃, 사회의 꽃으로 피여야 할 녀성들이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밟히우고 갖은 멸시와 천대,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해야 하는 최악의 인권불모지가 바로 남조선사회이다.

남조선녀성들이 《녀자로 태여난것이 죄냐.》, 《인간답게 살고싶다!》고 웨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본사기자

# 부러운 나라, 녀성존중의 화원

내가 공화국에 대한 방문시 처음으로 부러운 감정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어쩌면 충격이라 할가.

몇해전 공화국을 방문하여 솔숲 푸르른 송도원백사장에서 나는 우연히 자식들속에 묻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는 한 녀성을 알게 되였다. 그런데 그 녀성이 함께 온 여덟명의 아들딸들만이 아니라 군대에 나간 두 아들까지 합하여 열명의 자식을 가진 어머니라는 사실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물었다.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았는가고.

그러자 그 녀성은 놀라워하는 눈길로 되물었다.

《해고라니, 해고는 왜 됩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우리 조국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아키우는것을 적극 장려하고있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국가에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주고있는데 해고라니요.》

나라가 안겨준 모성영웅이라는 값높은 칭호와 더불어 온 마을, 온 공장의 관심과 보살핌속에 근심걱정없이 그렇게 많은 자식들을 키우고있는 그 녀성이 참으로 부러웠다.

왜 그렇지 않으랴.

자본주의나라의 녀성들에게 있어서 자식을 낳으면 해고되는것이 당연한것으로 되고있지 않는가.

내 경우만 놓고보아도 자식을 낳고는 대학졸업후 겨우 얻은 직업에서 해고되지 않았던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나였지만 결국 실업자대렬에 들어서게 된것이다.

이것은 나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황소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것만큼이나 힘든것이 바로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이 일자리를 얻는것이다. 이러한 성적차별로 하여 녀성들의 처지는 나날이 빈궁해지고있으며 인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하지만 내가 본 공화국녀성들의 처지는 너무도 달랐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녀성들이 남자들과 꼭같이 로동의 권리를 향유하고있을뿐 아니라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있었다.

이에 대해 나는 어느한 피복공장을 찾았을 때 더 잘 알수 있었다. 공장에 도착하니 나이지숙하고 세련미가 풍기는 현숙한 녀성이 반갑게 나를 맞이했는데 알고보니 공장의 지배인이였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돌아볼수록 공화국의 녀성들이 얼마나 복받은 삶을 누리고있는가를 페부로 느낄수 있었다.

녀성지배인의 말에 의하면 공화국에서는 일할 나이가 된 녀성들이 희망에 따라 로동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 권리가 법적으로 규제되여있다는것이였다.

하여 평범한 로동자의 딸인 그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 공장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뗐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대학과정을 마쳤으며 그후 작업반장과 직장장을 거쳐 공장의 책임일군으로까지 되였다고 한다.

그의 성장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게 신비하게 들려왔다.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려는 소박한 꿈, 쉰고개를 바라보는 오늘까지도 이루지 못한 나에 비하면 그가 너무도 아득한 높이에 올라서있었던것이다.

어찌 녀성지배인 하나뿐이랴.

공장의 모든 녀성종업원들이 문명하고 현대적인 일터에서 로동의 보람을 꽃피워가고있는 모습이며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원격교육까지 받고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훌륭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보면서 받은 감동은 실로 컸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끼는 법이다.

그날 공장의 녀성종업원들의 희열과 랑만에 넘친 모습을 보면서 공화국에서 녀성들을 위해 돌려주는 사랑과 혜택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페부로 절감할수 있었다.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하는 공화국의 녀성들.

녀성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해주는 따사로운 품속에서 존엄높고 긍지높은 삶을 꽃피워가는 공화국의 녀성들처럼 나도 살고싶었다.

재카나다동포 김련미

# 3.1의 피절은 만세소리 울리던 이 땅에서 오늘은…

3.1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104년이 지나갔다.

돌이켜보면 전민족적인 반일항쟁인 3.1인민봉기는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밑에서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해온 우리 민족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였다.

이날 나라를 사랑하고 일제를 미워하는 2천만 조선민족이 너도나도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반일항쟁에 떨쳐나섰다.

남녀로소 할것없이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는 하나같은 마음들이 그대로 타오르는 거대한 불길이 되여 온 삼천리강토를 뒤덮었다.

낮은 낮대로 밤은 또 밤대로 우리 민족이 웨치는 독립만세의 함성이 거리와 마을, 산과 들 어디서나 울리였다.

평양에서 맨 처음 시작된 3.1인민봉기는 점차 국내를 벗어나 만주와 상해,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로 번져갔다. 각계각층의 애국적인민들이 참가한 3.1인민봉기는 일제의 극악한 폭압만행속에서도 거의 1년동안이나 지속되였다.

3.1인민봉기참가자들이 웨친 만세의 함성은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용납하지 않고 민족의 자주권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조선민족의 높은 자주정신과 애국적기개, 불굴의 의지를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그러나 온 민족이 떨쳐나서 독립만세를 웨치였지만 독립의 아침은 오지 않았다.

당시 나라를 찾자고 대중적인 반일항쟁에 일떠선 우리 겨레의 손에는 아무것도 쥐여진것이 없었다. 맨주먹뿐이였다.

그 빈주먹을 들고 독립만세를 웨치였건만 또다시 그 주먹으로 피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민족이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강요당하던 우리 민족은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여서야 비로소 자주적인민으로서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었다.

3.1인민봉기당시 대동문을 메운 시위군중

국력중의 국력은 군력이다. 존엄과 명예도 강자에게만 있고 혁명위업의 정당성도 이겨야만 증명되며 자위가 있어야 자주도 자립도 있다. 힘과 힘이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그리고 믿을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전횡에 의해 세계도처에서 힘없는 나라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인민들이 재난을 당하고있는 비극적현실은 그 진리를 똑똑히 새겨주고있다.

오늘 공화국은 그 누구도 감히 넘볼수 없는 절대적힘을 지닌 초강대국으로 행성의 중심에 우뚝 솟아올랐다.

지난 2월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된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은 조선의 초강력의 일대 시위였다.

만고절세위인, 희세의 천출명장을 우러르며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간 열병대오, 공화국이 비축한 절대적힘의 상징인 주체무기들…

잊을수 없는 2월의 그밤 누구나 격정의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너나없이 산악을 안은듯 가슴이 뿌듯하고 배심이 든든함을 금할수 없다.》

《위대한 강국의 인민이라는 환희와 격정이 가슴에 차넘치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이 활화산처럼 터져올랐다.》

그리고 목청껏 웨쳤다.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강국의 인민이 터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

그것은 100여년전 이 땅에 울리던 만세소리와는 너무도 달랐다.

3.1인민봉기때 우리 겨레가 웨치던 만세가 나라의 독립,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갈구하는 약소민족의 피절은 절규였다면 2월의 경축광장에 울려퍼진 만세소리는 절세위인을 모시여 세상이 부러워하는 초강대국이 된 인민의 기쁨과 긍지, 환희의 분출이였고 위대한 강국의 절대적힘의 발산이였다.

그 만세소리는 불세출의 위인의 령도따라 천하제일강국으로 솟구치는 공화국의 영광넘친 발전행로와 더불어 위대한 우리 조국의 명함으로, 상징으로, 존엄과 명예로 영원히 천지를 진감하며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 민족을 위한 길에 삶을 바친 목사 (3)

《세기와 더불어》 1권과 2권을 보고 홍동근선생은 크게 감동되여 그 독후감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것이 자신은 물론 해외동포들로 하여금 민족의 위대한 령수를 알고 조국을 알며 애국성업에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리라는것을 바라마지 않았다.

후날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의 독후감을 보시고 좋은 글을 써서 발표했다고,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치하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홍동근선생은 흥분을 금할수가 없었다.

인생전환의 참뜻을 위인의 회고록을 통해 더더욱 가슴절절하게 체득한 자신이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하는것이 순리라고 생각한 선생은 그이의 과분하신 평가에 진정으로 머리가 숙어졌다.

그러한 격동을 안고 선생은 이어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 3권과 4권의 독후감을 심장의 피로 절절히 노래하였으며 자신의 진정을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께 아뢰이고싶어 또다시 공화국방문의 길에 올랐다.

그런데 도중에 선생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너무도 뜻밖의 비보에 접하게 되였다.

충격이상의 비통함을 안고 조국땅을 다시 밟으니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에 눈앞이 흐려지고 수령님을 만나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주체사상이 제일이고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식으로 일떠세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고 하신 그이의 가르치심의 참뜻을 새기면 새길수록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은 민족적자부심에 한껏 마음이 부풀어오르는감을 느끼였다.

어디를 보아도 망국의 피눈물 뿌리던 시대의 잔재를 찾아볼수 없고 서방세계의 모방이 없는 조국의 거리, 외세의 지배가 없고 인민이 주인이 되여 살고있는 조국의 현실.

이 모든것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여 마련해주셨다고 생각하니 선생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어버이수령님을 그리며 낮과 밤을 이어 온 나라 인민이 줄지어 찾아가는 만수대언덕은 말그대로 성지의 모습이였다.

엄청난 민족의 슬픔과 상실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민족자주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철의 신념을 가슴깊이 가다듬고 눈물을 거두어 분연히 일떠선 인민들의 모습이 눈에 안겨왔다.

잊을수 없는 1994년 7월의 그날 해외동포조의대표단을 만나주시고 먼길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오시느라 수고많았다고 하시면서 홍동근선생을 비롯한 대표단성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한없이 인자하고 웅심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앞에서 선생은 어버이수령님의 그리운 영상을 되찾았다.

선생은 위대한 령도자가 있어 위대한 인민이 있다는 숭엄한 뜻을 새겨안고 그 인민의 한사람이 되리라 결심하면서 민족의 하느님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나가는 성업에 량심과 의리를 지키고 몸과 마음을 다하겠다는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공화국을 방문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생전환의 생명수를 받아안은 홍동근선생을 진정한 애국의 길로 더욱 힘차게 추동한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였다.

처음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을 탐독하면서 글이 담백하며 읽기 편하게 씌여진데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선생은 회고록에서 눈길을 뗄수가 없었다.

위대한 인간이신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이 나라 백성의 한사람으로서 눈물없이는 대할수 없는것이였다.

자본주의에 찌들리고 사대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에게 회고록은 정신을 맑게 해주고 인간이 애국애족하는 길이 얼마나 신성하고 고귀한가를 일깨워주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

본사기자 전영민

# 날로 로골화되는 령토강탈야망

일본의 독도강탈야망이 갈수록 로골화되고있다.

섬나라것들은 지난해말 새로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문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령토》라고 박아넣은데 이어 일본수상을 보좌한다는 내각자문기구를 내세워 《독도령유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국민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떠들었다. 새해에 들어와 일본외상이라는자가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력사적사실에 비추어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고유의 령토》라는 망언을 늘어놓은데 이어 지난 2월 22일에는 일본정부의 고위인물이 참가한 가운데 이른바 《다께시마의 날》행사라는것을 벌려놓아 우리 겨레의 격분을 치솟게 하고있다.

남의것도 제것이라고 생떼를 쓰는 섬나라족속들의 파렴치한 망동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독도는 력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철두철미 조선의 신성불가침의 령토이다.

독도가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이라는것은 력사적사실자료들과 법률적근거에 의해 이미 확증될대로 확증되였다.

《삼국사기》, 《고려사》, 《성종실록》 등 우리 나라의 수많은 력사책들은 물론 《조선연안수로집》, 《단국선지》, 《시마네현지》 등 일본의 사료들에도 엄연하게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되여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은 패망과 함께 독도가 저들의 섬이 아니라는것을 국제사회앞에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당시 미국과 영국이 작성한 지도들에도 독도는 조선의 령토로 명백히 표기되여있다.

독도가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자료들은 계속 발굴되고있다.

2016년에 일본의 옛 지도들이 공개되였다.

이 지도들은 1888년과 1892년에 당시 일본농상무성의 지질조사소가 간행한 일본제국전도와 일본교과서에 실린 중등교육용지도이다.

일본제국전도에는 독도보다 작은 섬에까지 산표시가 되여있지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산표시가 하나도 없다.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령토였기때문에 애당초 측량대상에서 제외되였던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질학자이며 지리교과서 저자였던 야마가미가 집필한 교과서에 실린 아시아지도에는 독도가 일본국경선밖에 놓여있다. 이것역시 당시 문부성의 검정교과서로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토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물이다.

이러한 사실자료들은 독도가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들에 비해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몇해전 로씨야의 아시아지리전문가가 독도는 조선의 령토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라는 저서를 내고 1943년과 1951년사이에 이전 쏘련과 미국, 영국 등이 맺은 조약과 협정 등을 보면 독도는 조선의 불가분리적인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일본해》는 조선동해로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독도가 우리 민족의 령토라는데 대해서는 단 한가닥의 의문도, 반론도 있을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나라가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하는것은 천만부당한 생억지이고 용납할수 없는 주권침해행위이다.

독도와 그 주변에는 여러가지 귀금속들과 함께 풍부한 에네르기자원이 매장되여있으며 수산자원도 가득하다. 또한 지정학적위치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군사적요충지로 된다.

하기에 해외팽창과 령토강탈에 환장이 된 섬나라일본은 독도에 군침을 흘리며 그것을 강탈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섬나라족속들은 패망후 지금까지 독도에 일장기를 꽂는 그 시각을 일일천추로 바라면서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독도가 일본령토라고 공식선포한 정부의 외교청서가 발표되고 집권자들의 입에서 독도가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저들의것이라는 황당한 궤변들이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있다.

도꾜의 한복판에 독도를 제땅이라고 주장하는 《령토주권전시관》이라는것을 만들어놓았는가 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일본의 《독도령유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학습지도요령개정안을 꾸며냈다.

이 모든 무분별한 망동은 섬나라일본의 골수에 사무친 재침야망, 령토팽창야심의 집중적발로이다.

독도는 그 누가 감히 부정할수도 없고 빼앗을수도 없는 조선민족의 령토이다.

일본이 아무리 발악해도 독도는 움직일수 없는 조선민족의 령토이며 오히려 그러한 망동은 일본에 대한 우리 겨레의 적개심만을 더욱 증폭시킬따름이다.

김광억

## 지배와 굴종, 범죄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 10월인민항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한 미국

8.15후 남조선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말미암아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무법천지로 변하였다. 남조선의 경제는 혹심하게 파괴되고 인민들은 정치적무권리와 굶주림속에서 신음하게 되였다.

특히 1946년 여름에 이르러 남조선의 식량기근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미군정은 남조선에 수십년래의 큰물이 나서 밀보리농사를 망치게 되였으나 예정수확량을 넘는 엄청난 밀보리징수량을 농민들에게 배당하고 강권을 동원하여 강제수탈하기 시작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탄압략탈정책은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지 않을수 없었다.

남조선에서 삶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중적투쟁이 강화되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야수의 피비린내나는 몰골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였다.

남조선인민들의 10월인민항쟁에 대한 미제의 야수적탄압만행은 미국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생존권을 짓밟는 침략자, 강점자라는것을 더욱 명백히 보여주었다.

남조선인민들의 10월인민항쟁은 미국의 군사테로통치와 식민지예속화정책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분노의 폭발이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은 1946년 9월에 식량보장과 임금인상, 미군정의 온갖 폭압의 즉시중지, 민주주의적로동법령의 실시를 요구하여 총파업을 일으켰으며 미제의 파쑈적탄압이 강화되자 대중적시위투쟁에로 넘어갔다. 10월 1일 대구의 수천명 로동자, 학생, 시민들은 《쌀을 내놓으라!》고 웨치면서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미제침략군과 무장경관대는 평화적시위군중에게 총탄을 퍼부어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이에 격분한 시위군중들은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북조선에서와 같은 민주개혁을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한 투쟁을 벌려 대구시내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대구의 투쟁소식은 삽시에 남조선 전 지역에 퍼져갔으며 온 남조선땅은 전인민적반미항쟁의 도가니로 전변되였다. 이에 당황한 미군정은 10월 21일에 급작스레 기자회견이란것을 벌려놓고 남조선인민항쟁이 마치 외부로부터의 《공산주의침투》에 의하여 일어난것처럼 사태를 외곡하여 흑백을 전도하려 하였다. 이것은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공산주의침투》의 딱지를 붙임으로써 야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구실을 얻으려는 모략극이였다. 그러나 인민항쟁의 불길은 더욱 치솟아 11월중순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간이나 줄기차게 계속되였다.

항쟁군중들은 시위, 파업, 동맹휴학, 군중집회 등을 벌리는 한편 여러곳에서 폭동을 일으켜 경찰서, 군청 등 반동통치기관들을 습격하고 경찰과 악질분자들을 처단하였다.

1946년 9월 남조선로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시작되여 10월에 이르러 전인민적인 반미항쟁에로 발전한 이 투쟁에는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하여 청년학생들과 도시소시민 등 230만명의 각계각층 남조선인민들이 참가하였다.

미제는 10월인민항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땅크를 비롯한 각종 살인무기로 중무장한 미제침략군대와 반동경찰 및 각종 테로단을 총동원하였으며 닥치는대로 인민학살을 감행하였다. 미국은 10월인민항쟁을 계기로 1 000여명의 남조선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수천명에게 부상을 입히였으며 1만여명의 애국적인민들을 검거하였다.

10월인민항쟁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미국의 식민지통치기반을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황금석

# 미국과 일본, 남조선에 의해 전쟁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있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해외측위원회 올해 사업방향 토의—

얼마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의 신년모임이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 리홍정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있다고 하면서 이런 엄혹한 시기일수록 자주적평화공조의 토대를 마련하는데서 남측과 해외측위원회 성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평화행동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길을 만들어나갈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라고 하면서 평화의 주권자로서 자기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해 함께 전진해나가자고 힘주어 말하였다.

한편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인 손형근 일본지역위원회 의장은 지난해부터 류례없이 심각해지는 미국과 남조선《정권》의 《대북적대시정책》, 일본의 군국주의정책에 의하여 전쟁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있는데 대해서와 남조선의 민주세력들이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을 받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2023년은 전쟁세력과 평화세력, 반통일세력과 통일세력간의 치렬한 전면대결의 장이 펼쳐질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적대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한 련대련합투쟁을 강력히 대중적으로 전개하고 간또대지진 조선인학살 100년과 관련한 운동을 함께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새해모임이 6.15민족공동위원회의 단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어 모임에 참가한 남측과 해외측 대표들은 북과 남, 해외의 단결된 힘으로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를 막고 통일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갈 결심을 피력하였다.

모임에서 남측과 해외측은 올해 련대사업으로 3.1인민봉기 104돐에 즈음하여 굴욕적인 강제동원해결법과 일본정부의 군사대국화를 규탄하고 미일남조선《군사동맹》을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하며, 정전 70년을 향해 민족력량을 총집결시켜 《전세계 300곳 평화행동》을 비롯한 합동군사연습 반대, 전쟁종식, 평화실현을 위한 집중행동을 벌리며, 《오월에서 통일로》민족평화포럼을 개최하며, 간또대지진 조선인학살 100년에 즈음하여 추모행사와 진상규명활동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데 대하여 확인하였다.

본사기자

# 평화의 파괴자, 도발의 진범인은 누구인가

최근 공화국의 초강경대응조치에 질겁한 윤석열역적패당이 불에 덴 송아지마냥 마구 날뛰고있다.

얼마전에도 그 무슨 《안보》관련회의들을 급기야 소집한 윤석열역적패당은 판에 박은 《북위협과 도발》나발을 또다시 불어대며 남조선미국련합방위태세강화와 남조선미국일본안보협력을 떠들어댔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야합하여 련합공중훈련을 련이어 벌려놓았으며 3월중순에는 《자유의 방패》라는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로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주권수호, 평화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과 경상적인 군사행동이 그 누구에 대한 《위협》일수 없고 더우기 그 무슨 《도발》로 될수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것이다.

속에 불순한 목적을 품고있지 않았다면 공화국의 자주권행사에 대해 하등의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을것이다.

오히려 위협이나 도발은 외세를 끌어들여 조선반도의 긴장을 최대로 격화시키며 매일과 같이 전쟁연습들을 강행하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이 감행하고있다.

역적패당이 올해에 벌리려고 공개한 전쟁연습들의 침략적성격과 목적을 보아도 명백히 공화국에 대한 용납못할 정치군사적도발이며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최근 역적패당이 미국에서 상전과 야합하여 공화국을 핵으로 공격하기 위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이라는것을 강행한것도 대표적실례라고 할수 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그 모든것을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광고해나서고있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위협》대비의 간판밑에 벌리는 역적패당의 망동은 외세와의 군사적공조체제를 더한층 강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골수에 배긴 북침흉계를 이루어보려는 범죄적기도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현실은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주범이 누구이고 평화에 대한 위협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명백히 실증해준다.

역적패당이 외세의 반공화국침략의 돌격대가 되여 침략적인 전략자산들을 계속 끌어들이며 아무리 날뛰여도 그것은 부질없는짓이다.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전쟁장비도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강세앞에서는 순식간에 파철더미로 되고 엿가락처럼 녹아버리게 될것이다.

력사는 전쟁도발자, 평화파괴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교훈을 남기였다.

하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은 이를 무시하고 한사코 침략적인 외세에 추종하여 핵전쟁도발자, 평화의 교란자, 파괴자로 나서려 하고있다.

뒤일을 감당할 능력도, 타산도 없으면서 물덤벙술덤벙하는것처럼 미욱한짓은 없다.

본사기자 주 광 일

# 《개혁》의 탈을 쓴 생존권말살공세

올해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로동운동단체들에 대한 보수패당의 박해와 탄압책동이 더욱 우심하게 감행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올해 상반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부》와 경찰들을 내몰아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사무실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체포소동, 회계조사놀음을 련이어 벌려놓고있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올해 정초에만도 역적패당은 《민주로총》과 《전국보건의료산업로동조합》, 《전국금속로동조합》 등이 지난 시기 반《정부》투쟁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정보원》과 경찰을 내몰아 《민주로총》본부를 비롯한 수십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소동에 열을 올리였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올해 정초부터 윤석열《정부》의 《로동계 죽이기》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로동계에 대한 숙청이 강행되고있다고 평하고 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로동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불법파업근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것으로 정당화하지만 그것은 경제파국의 책임을 로동자들에게 들씌우고 저들의 반로동정책의 일환인 《로동개혁》을 강압적으로 내밀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적패당은 《로동개혁》을 《3대개혁》의 하나로 내들고 《개혁》외에는 살길이 없다고 고아대면서 《로동개혁》추진에 총력을 쏟아붓고있다.

하지만 역적패당이 들고나온 《로동개혁》이라는것은 기업들이 로동시간확대와 로동자해고를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하는 재벌특혜, 반로동정책인것으로 하여 각계층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고있다.

야당세력들도 로동계가 반대하는 《로동개혁》은 필요없다고 하면서 《정부》의 《3대개혁》관련법안들을 《국회》에서 단 한건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고있다.

어떻게 하나 《로동개혁》을 《집권성과물》로 만들어 보수세력들의 장기집권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재벌들의 편을 들어 폭리를 주는 대가로 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빨아제 배속을 채우려는 역도에게 있어서 이를 반대해나서는 로동운동단체들은 눈에 든 가시나 다름없다.

이로부터 윤석열역적패당은 반역정책강행의 첫 순서로 로동운동단체들의 기를 꺾는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온갖 구실을 내대며 그들에 대한 탄압에 그토록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로동계를 비롯한 각계층의 커다란 항의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은 기자회견과 성명발표,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윤석열역도가 로동운동단체들을 《부패세력》으로 몰아 거세 말살시키려 하고있다, 로동계에 대한 탄압으로 반인민적통치기반을 쌓으려 한다고 분노를 터뜨리며 로동자들에게 전쟁을 걸어온 역적패당과의 전면전을 벌릴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얼마전에도 《민주로총》산하 금속, 건설, 공공운수 등의 산업별로조성원 수천명은 《국회》와 《정부》청사앞에서 《재벌특혜, 윤석열검찰독재에 로동자는 분노한다!》, 《로동계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진보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구호들을 웨치면서 윤석열심판결의대회, 윤석열퇴진투쟁선포식, 천막롱성, 차량시위 등을 벌리며 거세게 항거해나섰다.

로동운동단체들은 3월에 계획하였던 총파업을 반윤석열정치투쟁으로 전환하고 로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투쟁방향을 확정하며 5.1절을 계기로 윤석열역도를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를 《윤석열퇴진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투쟁기세를 올리고있다.

남조선의 야당들도 보수《정권》연장을 위해 로조탄압을 일상화하는 독재《정권》은 오래갈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나서고있다.

압박이 있는 곳에 반항이 있기마련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 반로동정책에 환멸을 느낀 로동계를 비롯한 각계층의 분노는 더이상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으며 그것은 거세찬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으로 폭발하고 있다.

김 현 일

# 단평 《다 같은 쓰레기》

최근 남조선에서 《경찰청》소속 수사본부 본부장이라는자가 임명된지 28시간만에 자진사퇴하여 론난이 일고있다.

그자의 아들이 애비를 등대고 같은 학급학생을 8개월이나 괴롭힌것으로 하여 전학처분을 받았는데 애비라는자는 자식을 타이를 대신 아들문제처리가 잘못되였다고 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하여 각계층의 더 큰 분노를 자아내였으며 이것으로 하여 결국은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안된것이다.

그 애비에 그 자식이라고 법도 륜리도 모르는 그런 아버지밑에서 자식이 온전히 성장할수 없는것은 당연한것이다.

그 행위가 얼마나 역겨웠으면 보수층내에서까지 《애비나 자식이나 다 같은 쓰레기》라는 비난이 터져나왔겠는가.

문제는 쓰레기가 그들만인가 하는것이다.

그런 협오스러운 인간쓰레기를 검찰출신의 자기 심복이라고 해서 수사본부 본부장이라는 작지 않은 권력의 자리에 앉혀놓은자가 다름아닌 윤석열역도이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 아직 1년도 채우지 못한 역도는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정치적적수들을 제거할 비렬한 목적밑에 《경찰청》의 수사본부의 우두머리자리에 검찰출신의 심복을 들여앉혔던것이다.

윤석열역도의 눈에 들어 권력의 요직에 들어앉은자들이란 이번에 나가떨어진 수사본부 본부장처럼 권세와 탐욕을 위해서는 그 어떤짓도 서슴지 않는 불량배들이고 인간쓰레기들이다.

악취풍기는 쓰레기는 쓰레기를 좋아하고 가까이 지내는 법이다.

쓰레기의 왕초인 《룡와대》의 주인자체가 아이적에 돌아다니며 주먹질을 일삼은 《골목대장》이였고 검사가 되여서는 동료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후배검사가 거들먹거린다고 걸고들며 그 자리에서 두들겨패는가 하면 수사과정에서도 피의자들을 무시로 끌어다 손찌검으로 토설을 받아낸것으로 하여 주변사람들을 경악케 한 소문난 깡패이다.

그런 깡패의 눈에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수개월이나 괴롭힌 행위가 뭐 그다지 문제가 되겠고 못된 자식의 역성을 든 애비라는자가 나쁜 사람으로 보일리 만무한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윤석열《정권》이라는것은 어느 하나도 온전한자가 없는 그놈이 그놈인 악취풍기는 오물단지인것이다.

김 정 혁

# 말말말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

◇ 《윤석열〈정부〉를 무너뜨릴 때까지 싸우겠다.》

윤석열《정권》의 반농민정책에 항거한 《농민회총련맹》 의장의 성토.(2023년 2월 20일)

◇ 《호랑이 없는 골안에 삵이 설쳐댄다.》

얼마나 인물이 없었으면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별의별 잡것들이 다 나와 까불어댄다고 조소한 《진보련대》 자주통일위원회의 론평.(2023년 2월 27일)

◇ 《윤석열〈정부〉는 일본과 한통속인 내선일체〈정권〉이다.》

재침야욕에 들떠있는 섬나라에 계속 《관계개선》을 하자고 머리를 조아리는 윤석열역적패당의 굴종외교를 단죄한 《진보련대》 상임대표의 말.(2023년 2월 22일)

# 《룡산》을 휩쓰는 새로운 풍자열풍

풍자는 해학적인 웃음과 신랄한 야유조소로 인간과 사회를 어지럽히는 부정적대상의 추악한 본성을 날날이 파헤친다.

이미 남조선 각계층은 《하품체조》, 《닭모가지비틀기》, 장례식행렬, 대형단두대모형, 《박근혜 그만두유》 등의 풍자문화로 박근혜역도의 무지무능과 오만, 독선 등을 날날이 폭로하여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유신》악녀의 수치스러운 종말을 앞당긴 전례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윤석열역도를 야유조소하는 풍자열풍으로 역도의 비참한 종말을 당겨오고있다.

무지와 무능, 강권과 전횡, 패륜패덕과 해괴한 짓거리, 사대매국과 전쟁대결광기로 악명을 떨치고있는 윤석열역도가 어떻게 남조선민심의 풍자의 대상이 되고있는가를 몇가지 실례를 통해 전하려고 한다.

## 《아래도리만 보고 누군지 맞히기》

듣기에도 거북한 이 말은 윤석열역도가 《대통령》선거에 나섰을 때 역도를 대상으로 하여 만든 인터네트오락의 제목이다.

민심과 여론이 어떻게 보든 아랑곳하지 않고 렬차안의 좌석에 구두발을 뻐젓이 올려놓은 불망종, 앉을자리 설자리도 분간 못하고 항상 다리를 쩍 벌리군 하는 《쩍벌남》, 식당에 아래것들을 무더기로 끌고가 밤새껏 술판을 벌리고 나중에는 술에 먹히워 두다리도 제대로 건사 못하는 《술통령》으로 세인의 손가락질을 받은 윤석열역도이다. 하기에 민심은 제 처지도 모르는 역도를 조롱하여 《아래도리만 보고 누군지 맞히기》라는 인터네트오락을 만든것이다.

인간다와야 인간이다.

《아래도리만 보고 누군지 맞히기》, 이 오락은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품격조차 갖추지 못한 역도에 대한 민심의 평가이다.

## 《마음껏 락서하세요》

자기가 바보임을 인식한 바보는 바보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세인의 야유와 조소를 받으면서도 바보임을 인식 못하는 몽매함의 현대판전형이 바로 윤석열역도이다.

그래서 남조선민심은 역도가 바보임을 알게 해주려고 《마음껏 락서하세요》라는 풍자유희를 만들었다.

마스크를 착용한 윤석열역도가 곤룡포의 앞섶을 풀어헤치고 알몸을 드러낸 상태에서 헤벌쭉거리고있는 모습을 기본으로 한 만화에 마음껏 락서하라는것이 이 풍자유희의 골자이다.

역도때문에 맺히고 쌓인 울분을 터뜨릴수 있는 하나의 공간인것이다.

풍자그림에 새겨진 《마음껏 락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에 너도나도 호응했다.

《퇴진까지 1초 준다.》, 《세계적망신, 경제폭망 윤석열 퇴진하라.》, 《왜 태여났니.》, 《그냥 내려와.》

집권한지 불과 몇개월만에 이와 같이 알몸으로 조소당하기는 력대 집권자들중 윤석열역도가 처음이라고 한다.

단지 조롱이나 야유가 아니였다.

윤석열역도와 그 가족, 떨거지들의 부패와 추문, 독재와 악정에 대한 민심의 원성과 분노의 분출인것이다.

## 《윤석열에게 활쏘기》

최근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초불광장에 활쏘기놀이터가 등장하였다.

거기에는 윤석열역도와 그의 녀편네 김건희, 《법무부》 장관, 역도와 녀편네를 좌우지하는 점쟁이 《천공스승》, 《국민의힘》을 파녁으로 한 목표판이 설치되였다고 한다.

《난방비폭탄》, 《전쟁위기》, 《깡패정치》, 《친일매국》 등 역도의 반인민적악정과 사대매국을 폭로한 글들과 함께.

남녀로소가 진행한 활쏘기장면들을 본 내외여론은 《아주 생동하고 해학적이며 흥미있는 구경거리이다.》, 《깡패정치, 민생파괴를 초래한 윤석열의 말로가 눈앞에 선명하게 다가왔다.》고 평하고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윤석열에게 활쏘기》, 이것은 한갖 유희가 아니라 윤석열역도에 대한 민심의 사형선고라고 해야 할것이다.

## 《로동개악 윤석열에게 분노의 주먹날리기》와 《퇴진부적붙이기》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을 탓하는것은 무지몽매한 속물만이 할수 있는짓이다.

그러한 저능아가 바로 윤석열역도이다.

지금 윤석열역도는 《초보적인 례의》를 운운하며 아래것들을 내세워 《윤석열에게 활쏘기》풍자유희를 조직한 사람들을 고소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역도에 의해 민주주의는 행불되고 민생은 망가지였으며 《안보불안》은 증대되여 이에 분노한 민심이 그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장본인을 단죄하였는데 도적이 매를 든다고 도리여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례의》를 운운하니 이런 파렴치의 극치가 또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련이어 등장한 풍자유희가 《로동개악 윤석열에게 분노의 주먹날리기》와 《퇴진부적붙이기》이다.

응당하다.

무지와 부패, 독선과 악정에 쩌든 윤석열역도와 그를 조종하는 김건희의 명줄을 끊어버리고싶은 남조선각계층이 몹쓸것들의 낯짝이 그려져있는 주먹타격용 모래자루를 주먹이든 망치로든 마음껏 두들겨서라도 쌓이고쌓인 한을 터치는것쯤은.

윤석열역도와 그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천공스승》이나 역도의 팔다리노릇을 하는것들에게도 《퇴진부적》정도가 아니라 복수의 불세례라도 안기고싶은 마음일텐데.

《윤석열〈정권〉은 초불민심이 집권초기부터 강력한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고있다.》, 《평화적인 초불집회를 우습게 여기고있는것이 분명하다.》, 《미친개, 깡패무리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남조선민심은 이렇게 노호하고있다.

《룡와대》주인이 불러온 새로운 풍자열풍!

박근혜역도처럼 윤석열역도도 머지않아 분노의 초불과 더불어 온 남조선땅에 불기 시작한 새로운 풍자열풍에 휘말려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 진 흥

# 부패한 고용군대의 비루한 물골

최근 남조선군에서 련이어 발생하는 사건사고들과 기강해이문제로 하여 윤석열역적패당이 각계의 거센 비난을 받고있다.

무엇보다도 남조선군에서 각종 사고들과 군기문란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오고있다고 한다.

윤석열역도가 집권한 후 《군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겠다.》, 《실추된 군의 위상을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말 그 무슨 《긴급대응》명목으로 출격하였던 전투기가 리륙하자마자 땅에 곤두박혀 불타버리고 얼마전에는 《KF-16》전투폭격기가 섬광탄오발사고를 내는 등 각종 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여 역도를 곤경에 몰아넣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해군에서는 장교들이 전투함선을 사적용무에 리용한 《택시군함》사건, 암초에 부딪치고도 부유물과 충돌하여 고장났다고 한 《거짓보고》사건 등이 새롭게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있다고 한다.

남조선군내부에서 이미전부터 상습화되고있는 각종 가혹행위와 인권유린행위들도 줄어들지 않고 더욱 성행하여 사회 각계의 저주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군부것들이 얼마전 《국회》에 제출한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남조선군내에서는 수백명의 자살자들이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이 구타와 멸시, 모욕과 폭행 등에 의한것이라고 한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군기문란사고가 언제물 터져나오듯하고있다, 《정부》는 무너진 군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신랄히 야유조소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역도는 군부내에서 나타난 이러한 사고들과 기강해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처벌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는가 하면 오히려 그 책임을 이전 《정권》에 떠넘기고있어 더 큰 비난을 받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군부것들이 자살로 발표하였던 한 사병의 사망사건이 최근 집단적폭력행위에 의한 타살로 밝혀진것을 계기로 해명이 되지 않은 980여건의 자살사건들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나서고있는것이 이를 말해주고있다. 역도가 무능과 무책임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 군부우두머리들에게 형식상의 구두 및 서면경고를 준것을 남조선 각계가 《솜방망이처벌》이라고 규탄하면서 《봐주기징계》로 《안보》를 멍들게 하고있다, 내 편이면 죄가 무거워도 눈감아주고 내 편이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어 괴롭히는 윤석열《정권》답다고 지탄하고 있는것도 그 한 실례이다.

오늘 남조선군에서 발생하고있는 각종 사건사고들과 인권침해범죄들, 군기문란행위들은 미국의 식민지고용군, 깡패집단에서 빚어질수밖에 없는 필연적결과물이다.

원래 반목과 질시, 가혹한 기합과 폭행, 인간증오로 길들여진 남조선군에서 이로 인한 각종 인명 및 무기사고, 군기문란과 부정부패범죄가 발생하는것은 피할수 없는 숙명이다.

더구나 꼭대기에 부은 물이 발꿈치까지 흐른다고 무지와 무능, 독선과 오만, 강권과 전횡, 폭압밖에 모르는 윤석열역도가 집권한 후 약육강식과 패륜, 패덕으로 빚어진 군기문란사건들은 사태처럼 쏟아져나오고있다.

특히 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을 《국책》으로 정한 역적패당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 《강력한 응징》따위를 고아대며 눈까풀이 벌어진 때로부터 닫길때까지 남조선군을 북침불장난소동에 내몰고있는것과 상급의 몽둥이규률과 욕설, 폭행에 단 가마속의 콩알처럼 곤욕을 치르고있는 사병들속에서 루적되고있는 피로감과 우울증은 각종 사건사고의 온상으로 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이 군내에서 계속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와 허위보고현상은 끊임없이 벌리는 전쟁연습으로부터 오는 피로감과 사건발생후의 조사놀음으로 크게 위축되여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감추고싶어하는 《면피풍조》가 생겨났기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점은 외면하고 전 《정권》만 탓하는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사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사상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변질되고 타락하였으며 규률과 기강이 해이될대로 된 오합지졸의 무리가 윤석열역도가 《선진군대》라고 자화자찬하는 남조선군이다.

가소로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이 이런 쓰레기들을 가지고 감히 세계최강의 핵보유국인 공화국과 맞서보겠다고 날뛰고있는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무리, 염전에 질식된 비겁하고 취약한 무리를 믿고 존엄높은 핵강국에 《선제타격》이니, 《압도적대응》이니 하고 허세와 객기를 부리고있으니 가마속의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많은 남조선청년들이 외세의 침략전쟁대포밥, 무모한 대결책동의 희생물, 추악한 《정권》유지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치욕스러운 남조선군살이를 거부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본사기자 배 영 일

# 우리 식, 우리의 멋을 보여주는 전시회

더 밝고 아름다운것을 지향하는 오늘의 세계, 나날이 윤택하고 문명해지는 우리의 생활, 보다 좋아질 래일을 설계하는데서 산업미술의 역할은 자못 크다.

지금 인민의 리상거리로 눈부시게 펼쳐진 송화거리에서 《위대한 강국의 꿈과 리상을 최상의 경지에》라는 주제로 평양시산업미술전시회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하여주신 330여점의 도안을 비롯한 각종 산업미술도안들, 실현제품들이 전시된 산업미술전시회장은 번영하는 공화국의 미래, 다가올 래일을 눈앞에 그려보게 하고있다.

공업도안들이 전시된 구획에 들어서면 첫눈에 안겨오는것은 전야를 경쾌하게 내달릴 110hp뜨락또르도안이다. 특히 앞시창에서부터 앞으로 나가면서 미끄러져내리는듯한 경사를 이룬 기관부형태는 출발선을 박차고 내달리는 륙상선수마냥 속도감이 강하게 안겨온다.

새형의 광궤전동차도안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은백색바탕에 창문폭띠를 길게 뻗게 한 도안은 매우 세련된감을 주고있다.

다종다양하면서도 민족적정서와 현대적미감이 살아나는 경공업제품도안들도 하나같이 특색있지만 구역별, 대학별로 전시된 제품들도 자기의 독특함을 자랑하고있다.

락랑구역에서 내놓은 기능성휴대용체온기도안과 서성구역에서 내놓은 조립식가구형태도안, 장철구평양상업대학에서 내놓은 녀성들의 옷도안은 착상이 기발하고 보기에도 좋아 호평을 받고있다.

참관자들은 일상생활에 리용되는 갖가지 필수품도안들과 가구비품도안들을 보면서 실용성이 있으면서도 독특한 멋과 특색을 살린 훌륭한 도안들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여러가지 방직도안들과 사람들의 생활상편리를 도모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고도안들도 이채를 띠고있다. 《소나무》, 《철쭉》 등의 상표도안들과 함께 그에 따르는 제품들도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자기 손으로 그린 행복의 설계도들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설레이고있다.

평양종합인쇄공장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2층뻐스도안, 무궤도전차도안, 새형의 객차도안이 제일 인상에 남습니다.》

대성구역에서 온 김현화녀성도 《전시회장에 와보니 날로 비약하는 조국의 기상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앞날이라고 생각하니 밝은 래일에 대한 확신이 더욱 굳어집니다.》라고 말하였다.

주체적산업미술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을 통하여 참관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 애국의 열의를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리 철 민

# 202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 (1)

### 4.25체육단 력기선수 리 성 금

리성금은 2021년에 이어 202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의 첫자리에 또다시 올랐다.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일 야심만만한 포부와 애국의 마음을 안고 그는 이악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였다. 그가 흘린 땀방울은 곧 경기성과로 이어졌다. 그는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세계청소년 새 기록을 세우고 3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녀자 48kg급경기 추켜올리기에서 또다시 우승하였다. 그는 지난해에 진행된 국내경기들에서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였다. 리성금은 공훈체육인이다.

### 평양체육단 유술선수 김 진 아

김진아는 2019년에 이어 202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였다.

우승컵을 들어올려 공화국을 빛내이는 체육인이 될 꿈을 간직한 그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유술기초기술을 하나하나 습득해나갔다. 2011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유술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2019년 아시아—태평양유술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그는 지난해에 진행된 국내경기들에서도 특출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김진아는 공훈체육인이다.

### 금강산체육단 권투선수 방 철 미

2018년과 2021년에 이어 202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된 방철미는 명성높은 녀자권투선수이다.

녀성으로서 선뜻 결심하기 힘든 종목을 선택한 그였지만 세계가 다 아는 체육선수가 되겠다는 배짱을 가지고 훈련에 열중하여 국내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8년 국제권투련맹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높은 육체기술적능력과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맞다든 선수들을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물리치고 우승하였으며 지난해에 진행된 국내경기들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는 인민체육인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 압록강체육단 레스링선수 정 인 순

202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들가운데는 정인순도 있다.

오빠의 뒤를 이어 레스링선수가 될것을 결심한 그는 13살때부터 기초기술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압록강체육단 레스링선수로 활약하면서 국내 및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다. 2014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한 전적을 가지고있는 그는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특기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지난해에 진행된 경기들에서 그는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절찬을 받았다. 정인순은 공훈체육인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 압록강국방체육단 사격선수 권 광 일

권광일은 2021년에 이어 또다시 202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되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격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있었다. 훌륭한 사격선수가 될 꿈을 안고 그는 피타게 훈련하면서 사격기술을 부단히 련마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국내경기는 물론 국제경기들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리 성 금 김 진 아 방 철 미 정 인 순 권 광 일

전연기념물

# 금 란 굴

금란굴은 강원도 통천군 금란리의 북쪽해안에 있다.

련대산의 북쪽벼랑에 있는 금란굴은 현무암이 오랜 세월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을 받아 이루어진 해식동굴이다.

금란굴은 길이 16m, 너비 4~5m, 높이 5~7m이며 안으로 들어가면서 너비와 높이가 작아진다.

물깊이는 굴어구에서 수m에 이르나 막장에서의 깊이는 0.5m안팎이다.

굴안으로 들어가면서 앞의 돌기둥들은 길고 붉은색을 띠며 뒤의것들은 짧고 푸른색을 띠는데 참으로 기이하다.

굴안에는 흰 바둑알같은 잔자갈들이 깔려있다.

파도가 조용히 밀려오면 반짝거리는데 마치 조개무늬와 고기비늘들이 알른거리는것같이 보인다.

굴안에서는 성게, 생복, 열갱이 등이 살고있을뿐 아니라 바다새들의 살이터로 되고있다.

금란굴이 있는 일대는 6각돌기둥들이 병풍을 두른듯 절벽을 이루고있으며 절벽우에는 소나무들이 자라고있다.

금란굴은 그 모양이 기묘하고 신비로와 예로부터 시와 노래에 담아왔으며 조선동해와 어울려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이루고있어 절승경개의 하나로 일러왔다.

본사기자

# 관상적가치가 높은 새 품종의 화초들

## —평양화초연구소에서—

최근 평양화초연구소에서 꽃색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모양이 독특하여 관상적가치가 높은 새로운 품종의 화초들을 육종하여 내놓았다.

지난해에만도 이곳 연구소에서는 섞붙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육종방법으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꽃종자들을 국내기후풍토에 맞게 풍토순화시켜 10여개의 새 품종을 국가품종으로 등록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비단향냉이꽃의 새 품종들을 육종하여 무난방박막온실에서도 겨울철에 꽃을 생산할수 있게 하였으며 같은 로력과 온실면적으로 품질이 좋은 만첩꽃을 2배로 생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화단 및 화분장식에 적합한 키낮고 밀집형의 포기모양을 가진 여러가지 색갈의 사철베고니아품종들도 새로 육종되였다.

이밖에도 관상기일이 길며 장마철의 높은 온도와 습도에 견디는 힘이 강한 큰천인국 《사철》과 오래동안 꽃이 많이 피고 줄기가 내리드리워 관상적가치가 높은 드림형페투니아 《진분홍색》을 비롯한 새 품종화초들이 육종됨으로써 거리의 풍치를 돋구고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연구소에서는 선인장의 관상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고있다.

생김새가 다양하고 방안의 공기를 맑게 해주는 선인장의 우점은 살리고 색이 단조로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곳 연구사들은 서로 다른 종류를 접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밝은색이 나면서도 다채로운 선인장들을 내놓았다.

본사기자

비단향냉이꽃 《분홍색》 비단향냉이꽃 《흰색1》호 바늘꽃나무 《보라만천성》
드림형페투니아 《진분홍색》 큰천인국 《사철》 사철베고니아 《붉은색》
사철베고니아 《연분홍색》 노란코스모스 《금색》 누운선인장 《황옥》

사 화

# 밥맛을 돋구어주는 토장 (1)

글 전 철 호, 그림 박 봉 혁

박달임금이 조선을 세운지 천여년이 지나서 있은 일이라고 한다.

조선(고조선)의 도읍 왕검성(평양성)에서 동쪽으로 백수십리가량 떨어져있는 박달곶마을(오늘의 강동군 문흥리일대)에는 고달이라는 40대의 장년이 살고있었다.

고달은 박달곶마을은 물론 왕검성에까지 명궁으로 소문난 사람이였다.

그런 고달이 삼복철 땡볕아래서 김매기를 하다가 더위를 먹은 다음부터 머리가 어지럽고 입맛을 잃어 밥을 드는둥마는둥하더니 자리에 눕게 되였다.

비루먹은 강아지도 살이 오른다는 늦가을에조차 몸이 추서지 않게 되자 고달은 자기의 병이 위독하다고 단정하였다.

입안은 소태같이 쓰고 몸은 자꾸 땅으로 잦아드는듯 싶고 도저히 밥을 먹을수 없으니 이게 골병든게 아니고 뭔가.

이젠 죽을 때가 됐나부다.

밥술을 영영 놓을 때가 왔다고 생각하니 원통하기 그지없었다.

그전에는 얼마나 사는 멋이 있었던가.

한창시절에는 때없이 마을들에 달려들어 짐승들을 물어가고 지어는 사람까지 해치던 호랑이를 활로 쏘아잡기도 하였다.

어찌 그뿐이랴.

갑옷입고 투구쓰고 전장을 종횡무진하면서 변방에 침노한 오랑캐들을 수없이 활로 쏘아잡아 그 공으로 나라에서 내리는 비단필까지 상으로 받았다.

그때는 생전 늙지 않고 나라와 겨레를 지키는 명궁으로서 오래오래 변방에 남아있을줄로 믿었다.

그후 태묻은 고향으로 돌아와 본때있게 농사를 지으면서 젊은이들에게 무술과 병법을 가르치였는데 그들이 다 변방에 나가 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군공을 세웠다.

이런것이 사람사는 락이 아니겠는가.

허나 이제 더는 그 좋은 일을 찾아할수 없게 되였으니 그래서 원통하다는것이다.

하긴 마흔을 넘어 살았으면 적지 않게 산셈이다. 대체로 사람들이 마흔전에 세상을 버리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하느라니 고달의 마음은 한결 가라앉는듯하였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더 찾아할수 있을가.

고달은 요즘 이 한가지 생각으로 마음을 쓰고있었다.

박달곶마을은 조선(고조선)을 일떠세운 박달겨레의 시조임금이 묻힌 고장이다.

마을이 주산으로 삼은 박달메(대박산)기슭에 시조임금의 릉이 있다.

아득한 태고적부터 박달겨레는 맑은 물이 늠실대는 큰강(대동강)이 유유히 감돌아 흐르는 박달메기슭의 비옥한 땅에서 살아왔다.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붉은메(홍산)가 솟아있다.

10살때 벌써 활쏘기재주를 련마한 박달임금이 바로 그 산에서 무술을 닦았는데 어찌나 말을 밤낮으로 세차게 달렸던지 풀과 나무들이 말발굽에 짓밟혀 다 없어지고 나중엔 불그스레한 흙먼지가 산불연기처럼 피여올라 그런 산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오늘도 고달은 몸져누웠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박달임금이 림종시에 남겼다는 여덟가지 유언을 생각해보았다.

자기 마음을 다잡아 남의 마음을 비치게 하면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받드는 도리를 체득하고 나라에 충정해야 하느니라.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해야 하느니라.

사람마다 양보하며 서로 빼앗지 말며 집살림을 풍족하게 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하느니라.

남녀가 음탕하지 말며 무어진 배필과 한생토록 변심말고 살아가야 하느니라.

사람을 업신여기고 모욕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간사한 마음과 남을 해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하느니라.

나라의 산천초목을 아껴야 하느니라.

박달임금의 유언을 되새겨보느라니 이 유언을 족자로 남겨놓아 자손들이 두고두고 볼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아비로서 후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쓴것이라고 하면 그 여운이 더욱 클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그는 흰 명주천과 붓을 가져다달래려고 안해를 불렀다.

《이보게! 어데 있나?》

몇번 불러도 안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달은 소리치기를 단념하였다. 틀림없이 안해는 또 약을 구하려 나갔을것이다.

그만큼 약으로는 안된다고 했는데… 입맛을 잃었다는건 골수에 병이 들었다는것이고 골병에 들면 백가지 약일지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

그전에 중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보았을 때 열사람이고 백사람이고 다 입맛을 잃었다고 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병석에서 종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안해는 날마다 약을 구해오느라 극성이니 과연 답답한 아낙네로다.

고달이 벽에 기대앉아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이어 방문이 벌컥 열렸다.

고달은 흠칫했다. 방에 들어서는 사람은 안해가 아니였다. 구척같은 키에 눈같이 하얀 옷을 입은 백발로인이였다. 얼굴은 젊은이들처럼 불깃불깃했다.

고달이 놀라와하는데 그를 앞세우고 들어온 안해가 말했다.

《이보세요. 병 잘 보는 의원님을 모셔왔어요.》

고달은 그 말에 자기를 다잡고 절을 차렸다.

《됐소, 됐다니까.》

급히 고달에게 다가간 백발로인은 그를 자리에 눕히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달의 맥을 짚어보고나서 그의 안색이며 숨소리를 살피였다.

이윽고 백발로인에게서 탄식소리가 흘러나왔다.

《한다하는 〈박달곶촌명궁〉이 골병을 재촉하다니…》

고달은 금시 의문이 가득해졌다. 한번도 본적 없는 로인이 상대를 어떻게 안다고 《박달곶촌명궁》이라 할가.

# 3월의 절기와 민속

3월의 절기로는 경칩과 춘분이 있다.

경칩은 땅속에서 겨울을 나던 동물(또는 벌레)들이 봄기운에 날씨가 따뜻해져 얼음이 녹고 우뢰가 울며 비가 오는데 놀라 잠에서 깨여나는 때라는 뜻이다.

춘분은 봄철의 가운데 들어선 때라는 뜻인데 이때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진다.

이 시기에는 센바람이 자주 불지만 날씨가 온화해지고 겨우내 얼었던 땅이 완전히 풀린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경칩, 춘분시기가 오면 농사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가시기 위하여 울바자와 담장을 다시 손질하였으며 집앞의 물도랑도 정리하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였다.

이와 함께 봄갈이도 하고 여러가지 농작물과 함께 꽃모, 나무모도 심으며 한해 농사를 시작하였다.

이 시기 우리 선조들은 들에서 돋아나는 나물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먹으며 봄의 향취를 느끼였다.

또한 이 시기에 여러가지 약초들을 캐여 건사해두기도 하였으며 농사일의 흥을 돋구고 한해 농사가 잘되기를 바라며 농악놀이도 진행하였다.

올해의 경칩은 3월 6일이며 춘분은 3월 21일이다.

본사기자

민족료리

# 자 라 탕

자라탕은 자라고기로 끓인 국이다.

자라는 열을 내리우고 어혈을 없애며 지방간을 막고 소화흡수가 잘되게 한다. 또한 몸이 허약하고 기침을 하며 피가래가 나올 때 쓰면 아주 효과적이다. 이로 하여 자라탕은 장생불로식품으로 일러왔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음식감으로 자라고기 130g일 때 생강 1g, 파 7g, 료리용술 15g, 맛내기 5g, 간장 0.5g, 소금 2g을 준비한다.

생강의 절반은 다지고 나머지는 즙을 낸다. 파는 송송 썬다.

자라고기는 찬물에 잠그어 처음에는 센 불에서 한소끔 끓인 다음 약한 불에서 30분간 거품을 걷어내면서 끓이다가 료리용술과 다진 생강을 두고 10분간 더 끓여 채에 밭아놓는다. 삶아낸 자라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놓는다.

채에 밭은 국물에 생강즙, 맛내기, 간장, 소금을 두고 한소끔 끓인다.

탕그릇에 썰어놓은 자라고기토막을 담고 한소끔 끓인 국물을 부은 다음 송송 썬 파를 띄워낸다.

본사기자

ㄱ—1582ㄷ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